

<http://dx.doi.org/10.17703/JCCT.2016.2.1.13>

JCCT 2015-2-2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 연구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예술, 그 중에서도 문학은 인류의 감성에 늘 붙어 이야기하면서 글을 접한 타자를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 그러한 문학의 치료적 기능의 관점에서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삶이라는 무형적 정형의 틀에 대한 문학의 치료적 효과는 물론 정형의 시에서 극한의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면, 정형의 틀 안에 어떻게 자유로운 인체의 뉴런에 관계된 면역시스템이나 문학의 약을 스며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은 더욱 더 우리의 창작적 기법의 필요를 가증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는 문학치료 효과를 더욱 확장시키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고는 그러한 글쓰기 혹은 마음 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주요어 : 문학치료, 시조의 다이돌핀(Didorphin), 엄격한 정형의 시조, 문학치료의 약, 시냅스, 뉴런

Abstract In arts, literary is always dealing human emotion and it makes a man weep or laugh among them. Hence, insight on how to write a poet is very effective in view of literary therapy. The healing effect by literary therapy on the invisible frame of life gives the resultant limitation using the poetry of a fixed form. Therefore, the search on how to write the free human immune system related on neurons or on how to deal with literary drugs makes our technique creatively developed. In this study, "the right writings for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Writing Sijo'" is shown to make the literary therapy more extensible and it is shown to makes the life quality more abundant. This paper suggests the right writing methodology of Sijo in such a view point.

Keywords : Literary Therapy, The Didorphin of the Sijo, Strict Fixed Sijo, Medicine of the Literary Therapy, Synapse, Neuron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물질만능적 사고의 팽배함과 지속하는 생각의 오류들로 인해 많은 테러가 자행되고 자연과피 등으로 인류

는 자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 어떻게 문학이, 혹은 인간정신의 숭고함이 인류의 미래를 비춰줄 것이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삶을 치료하고 건설해 나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중한 자각으로 인해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문장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연

*정희원, 경북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접수일자: 2015년 6월 4일, 수정완료일자: 2015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11일

Received: 4 June 2015 / Revised: 18 November 2015

Accepted: 11 Dec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Literature Therapy Dept. Kyungpook University, Daegu, Gyungbuk

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장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고는 한국의 정형시 ‘시조’를 대상으로 밝혀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창작을 지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時調의 型式과 活用>[8] [9]와 필자의 논문 [1] [2] [3] [7]에 의하면 시 중에서도 정형시, 특히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가 문장의 치료적 기능을 속히, 재미있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한 문장 기능의 수정과 보완의 행위가 어떻게 치료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에 대한 검증된 방법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왜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가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문학치료에 어떠한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글쓰기의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기존의 문장을 분석하여 다른 종류의 단어나 문장으로 교체하거나 문장을 혹은 구나 단어의 위치를 바꾸거나 수식의 방법을 달리하여 극하게 정형화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인체에 시냅스(synapse) 시키고자 한다(문장의 시냅스의 작용은 필자의 논문 참고[3]). 본고에서 문장을 인체에 시냅스 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은 필자의 책 <時調의 型式과 活用>과 필자의 창작지도 방법에 따라 4년 간 시조를 창작하거나 필자에게 창작 지도를 받은 후 타자들을 상대로 필자와 같은 방법으로 시조 창작을 지도하는 한국문단의 문인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그 문인들의 시조의 문학치료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기 창작된 시조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더욱 유용한 문학치료적 작품이 창작되는 과정들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조로 인한 흥미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집중력을 탐색하고, 연구 자료에 대한 문학치료적 분석은 작품의 수정과 보완 후에 나타내는 작가들의 반응으로 치료적 검증을 수행했는데, 본고에 게재되는 창작품들은 저자나 타자에게 말할 수 없는 극한 창작의 기쁨을 선사하거나 너무나 행복한 사랑의 웃음과 재미들을 선사하기도 하는 등으로 문학치료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말할 수 없는 극한 창작의 기쁨”이나 “너무나 행복한 사랑의 웃음과 재미들”은 인체에 대한 막강한 치료의 호르몬인 다이돌핀(Didorphin)이 인체의 시스템에서 분비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현상이다[2] [5] [6].

III. 연구결과

1. 문장의 수정과 보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

도서출판 “문학과 치료”에서 펴낸 「문학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에서 “문학과 인간을 ‘서사’라는 동일한 기제로 이루어진 존재”로 이해한다고 말한다[11].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필자는 인간은 텍스트의 기호 혹은 텍스트의 전자 신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한다. 이것이 문학적 기호 혹은 인체에 스며든 문학적 텍스트의 전자 신호와 소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제로 판단되는 것이다.

인체는 창작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많은 기억과 상상들로 텍스트화 되어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이 텍스트들을 구상하고 추출하여 흥분과 희열의 문장들을 출산해 내기 때문이다. 그것이 창작의 행위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주가 늘어갈수록, 혹은 우주의 시간이 인간의 몸과 정신에 시조의 3장처럼 쌓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인간의 몸이 작동하는 중에 오류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는 문학적인 서사의 교체

나 수정 혹은 보완으로 가능하다. 문장의 수정과 보완이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듯이 그러한 행위는 텍스트화된 인체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본고의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의 효과”,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의 방법”에서 알아볼 수 있다.

2.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의 효과

-시조는 3D 프린터의 원리처럼 문학치료적 기제를 인체에 출력하는 문학치료의 프린터이며 출력기이다.

「인지, 뇌, 의식」이라는 책에서 “일반적 언어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언어와 뇌의 언어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말한다[13]. 마음의 언어인 문학과 인체의 언어인 뇌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학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장뉴런[4]이 인체의 뉴런에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며 극하게 접근하는 경로는 극한 정형시에 의해서인데, 특히 3장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에 의해서이다. 인체(몸과 마음)는 정형을 유지하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인데 인체의 정형에 오류가 뜨게 되면 문학의 정형의 틀에 사상과 감정을 꼭 맞게 이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극한 정형의 인체를 닮은 극한 정형의 시가 되어야 하는데 시조가 바로 인체의 몸과 마음의 구조를 닮은 극한 정형의 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체를 닮은 한국의 정형시 시조가 3차원 프린터의 역할을 하여 인체에 원하는 감성을 출력해 내는 것이다. 이는 마치 3D 프린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시조는 초장이 1차원, 중장이 2차원, 종장이 3차원에 해당하는 감성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 이때 시조의 문장에 흐르는 뜻, 혹은 문장의 에너지는 감정과 감동의 흐름과 관련된 3차원 이상의 인간의 정서적이고 존재적인 부분이며, 시조의 문장 자체로 이루어진 기호학적 틀은 인간의 몸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조는 친인체적인 문학의 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체의 틀에 꼭 맞는 시조의 틀에 마음을 부어 주조하면, 문학치료제인 문장을 극하게 주조하면, 문장의 에너지의 뉴런이 인체의 뉴런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정된 틀에 어떻게 마음을 주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요구된다. 잘 주조만 되면 정형시의 틀은 인체의 틀, 혹은 마음의 틀에 꼭 맞게

되어 인체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인체는 문장의 뉴런으로써 풍요로워지고 문장의 뉴런이 뿜어내는 희열과 기쁨을 동반한 다이돌핀(Didorphin)을 분비하여 치료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시조의 다이돌핀(Didorphin)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면 다이돌핀은 극한 어떤 정형의 에너지인 것이며, 그러한 정형의 틀이 주조되었을 때 인체에 담겨지는 극한 에너지의 정형인 것이다. 그래서 오류가 뜨는 인체는 어떤 정형의 틀을 요구한다. 그래서 문학이 존재하고 예술이 존재하며 특히 극한 정형에 맞춘 예술 혹은 문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학 중에서도 극한 정형시의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 정형의 틀에 맞추어졌을 때 인체는 치료되는 것인데, 이 틀은 각자의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뉴런의 시스템에 의해 각각 치료의 양상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인 감정 혹은 감동의 시스템엔 공통분모가 있다. 이 공통분모가 문장 속에서 발현될 때 인류는 소통하게 되고 집단의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문장 치료의 기제는 이 공통분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영화나 연극의 대사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여 청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가게 되는 경우와 같다. 청중들이 극한 기쁨 혹은 극한 슬픔으로 열광하는 상황은 인체에 대한 치료제인 다이돌핀이 작동하는 현상인 것이다.

3.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의 방법

극한 문학치료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를 인체에 처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시조는 3개의 문장이 이끌어 완성되는 시가 될 때 극한 정형의 맛과 극한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시조는 시가 되고 극한 영혼의 노래가 된다.

필자와 함께 극한 정형의 시조와 노는 것을 즐기는 그룹의 멤버들은 슬퍼도 울거나 웃고, 기뻐도 울거나 웃고, 너무 재미있어도 울거나 웃는 것을 쉴 수 없이 보아왔다. 3장을 시작하기만 하면 시조는 인체에 잠겨있는 모든 감정과 감성들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불러 일으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필자는 보아왔다.

이러한, 시조를 잘 창작하지 못하면 오히려 작자나 독자가 지루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이제 시조를 정형으로 올바르게 극하게 창작하는 방법, 혹은 시조의

문장을 좀 더 맛깔나게 마음의 베틀로 직조하는 테크닉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필자가 정형시 시조의 창작을 지도하는 “시조야 놀자”,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그룹에서 창작 지도를 받는 문인들의 작품들과 필자가 만들어본 작품들을 예로 들어 문장과 인체가 치료되는 기전의 틀을 추출하여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예로 드는 작품들은 이미 습작 과정을 필자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타자와 소통하며 흥분과 눈물(재미있거나 슬프거나 하여)과 웃음 혹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이 수행되어 문학치료의 처방전으로서 검증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 작품들에는 치료의 문맥이 있다. 마치 황금의 맥처럼 곱뚝 정서로 살아있다.

1) 기승전결을 정형시에 활용하는 방법

정형의 시조를 창작하면서 기승전결을 잘 사용하면서 시적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시적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치료적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시조를 보자.

그리운 잎새들이 수없이 푸르르네
투명한 향기따라 벌들도 춤추는데
햇빛도 툭툭 건드려 석류 알알 터지네

-필자의 시조 <그리운 잎새들이> 전문

이 작품은 종장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노래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종장(결론)에 이르러서야 간결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이 시조가 수행하는 간결한 문장의 유희, 테크닉의 맛이다. 인체는 복잡한 것보다 간결한 것을 원한다. 이 시조는 일부에서 전체로의 기승전결을 이루고 있다.

초장에서 말하는 “잎새들”이 무슨 잎새들인지 알 수가 없다. 종장에서 말하는 “향기”도 무슨 향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종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석류”의 잎새들이고 석류의 향기였음을 알게 된다. 그것도 종장의 3째 음보에서 “석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된 후부터다. 종장의 4째 음보에서는 이 시조가 마무리를 짓는다. 석류의 그리움의 잎새들이 푸르렀고 그리고 석류의 향기에 따라 벌들이 돌아다녔던 것을 종장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햇빛이 툭툭 건드려 석류의 알들이 터져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마치 팽팽히 부풀어 오른 풍선들을 작은 바늘로 건드리면

팡팡 터져버리듯 햇빛이 툭툭 건드려 석류를 터트리는 모습, 아니 석류가 짹 짹 벌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시조는 탄력성이 있고 풍요롭다. 사랑도 땀을 들이듯이 시조도 사랑하듯 어루만지며 그렇게 쓰는 것이다. 이것이 문장에 대한 혹은 석류에 대한 혹은 문장에 스며드는 인체에 대한 치료의 행위이다. “햇빛이 툭툭 건드리는” 문장(혹은 석류)에 대한 치료적 행위는 인체에 대한 치료의 행위를 오버랩 시킨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인체에 문장이 스며든다. 이것이 문학치료의 과정이다. 인체에 대한 치료의 행위가 문장에 대한 치료의 행위에 오버랩되어 스며들기만 하면 문장이 치료되듯이 인체는 치료되는 것이다. 필자는 문장에 담겨있는 텍스트의 치료적 기제와 인체에 담겨있는 텍스트의 치료적 기제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 문장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인체도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만약에 이런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문학치료라는 것은 아예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문장의 텍스트에는 인체와 공유할 어떤 공통분모적인 소통의 기제가 부재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조는 초장에서도 석류의 잎새들을 말함이고 종장에서도 석류의 향기를 말함인데 종장에 가서야 그것이 “석류”라면서 석류의 적나라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승전결의 맛은 그런 것이다. 초-중-종장이 긴밀하게 하나의 석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석류”에 대한 시적 정서의 흐름이 점점 더 강렬해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종장에 가서야 때를 기다려 익을 대로 익은 말을 하고 석류로 은유된 사랑의 완성을 보는 것이다. “햇빛이 툭툭 건드려” 석류나무의 열매가 알알이 터져나는 시점이 종장에 오는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죠
내일도 틀림없이 지구는 밝아오죠
우리도 기필코 한 번 빛이 되어 보아요
-필자의 시조 <이땅에 어김없이> 전문

이 시조는 전체에서 일부로의 기승전결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기) ⇒ 밝음(승) ⇒ 우리도(전) ⇒ 빛(결)>이 되는 것이다.

어감의 강도에 의한 기승전결은 <어김없이(기) ⇒ 틀림없이(승) ⇒ 우리도(전) ⇒ 기필코(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상의 주체에 의한 기승전결은 <태양이(기) ⇒ 지구는(승) ⇒ 중장과 중장 사이(전) ⇒ 우리도(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작자의 의지에 의한 기승전결은 <떠오르조(기) ⇒ 밝아오조(승) ⇒ 중장과 중장 사이(전) ⇒ 되어 보아요(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조건절을 사용한 문장 등을 바꾸는 방법

시조를 창작할 때 영어에서와 같은 조건절을 사용하면 문장의 호흡이 급하게 되어 시조의 은근한 탄력성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호흡이 급하다는 것은 문장에 병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말끔하고 싱싱해지게 문장을 수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달콤한 종소리가 바람에 활짝 피네
매듭이 뚝뚝 지던 기억이 뜨거우면
오래된 연두 적삼이 붕긱하게 설레네
-양애희의 시조 <달콤한 종소리가> 전문

이 시조는 중장에 조건절 “기억이 뜨거우면” 이 있어서 중장에서 중장으로 가는 호흡이 빨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호흡이 빨라지면 마음도 급해지고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한 장이 급하지 않고 시조의 3장 전체의 어울림이 모나지 않게 하는 비법이 시조의 명창들이 건너야 할 강이다.

조건절은 그 다음의 구나 문장을 바로 받아 서술되게 하는 문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조건절에 반응하는 “붕긱하게 설레네” 라는 문장에서 양애희 시인이 고민한 시적 감각은 “~뜨거우면” 이라는 조건절에서의 느낌의 시간의 흐름과 중장의 3째 음보에서의 “붕긱하게 (설레네)” 라는 시어 사이에서의 시어의 연결의 흐름이 너무 빠른 데서 오는 시조의 맥박의 불균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장에 나타나는 부정맥의 현상으로서 인체의 심장과 관련된 부정맥의 현상과 같

은 것이다. 그래서 문장이 치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뜨거우면을 ‘뜨거웁고’ 로 붕긱하게 설레네를 “붕긱 붕긱 설레네” 로 하면 한층 생동감이 있고 3장의 어울림에서 성급한 시간의 각이 돌출되지 않는다. 이것이 문장의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문장의 스트레스가 치료되면 그 문장을 받아들이는 인체도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이 뜨거우면” 의 조건절에서 ‘뜨거우면’ 을 ‘뜨거웁고’ 로 단어를 던져놓고 여유를 부리며 “붕긱하게 설레네” 를 “붕긱 붕긱 설레네” 로 바꾸어 ‘붕긱 붕긱’ 의 표현으로써 그 시어의 흐름에 잠시잠시 태클을 걸며 결론의 시간을 연장시키며 시조의 중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문장이 스트레스로 상처 난 부분을 “붕긱 붕긱” 하게 기워주는 것이다. 이것이 시어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듯하면서도 잠시잠시 연장해 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붕긱’ 과 ‘붕긱붕긱’ 은 부사인데 “붕긱 붕긱” 은 의태어의 어감처럼 사용되었다. “붕긱붕긱” 이 “붕긱 붕긱” 이 되어 ‘붕긱’ 과 ‘붕긱’ 의 사이를 띄움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시조의 창작과정에서 의태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시어의 에너지의 흐름의 시간을 약간씩 연장할 수 있다. 빨리 끝내지 않고 시간을 연장하는 것, 이 늦춤의 미학(美學)에 치료의 비법이 있다. 인체 내에서의 긍정적인 감동의 호르몬 분비를 바로 끝내지 않고 연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감동의 호르몬이 인체 내에서 오래 분비될수록 혹은 감동의 여운이 오래 머물수록 인체에는 치료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양애희는 “ ‘붕긱하게’ 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잘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문학치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감사 혹은 감동을 표현하는 것은 문학치료의 효과인 것이기 때문이다. 뜨겁고 붕긱 붕긱한 수술로 인해 치료가 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달콤한 종소리가 바람에 활짝 피네
매듭이 뚝뚝 지던 기억이 뜨거웁고
오래된 연두 적삼이 붕긱 붕긱 설레네
-양애희의 시조 <달콤한 종소리가> 전문

3) 음보 혹은 단어의 어감 등을 바꾸는 방법

시조에서의 음보, 혹은 단어나 서술어의 어감을 바

꿀 때 정형의 틀에 꼭 맞게 바뀌어 주면 문학치료의 효과가 극하게 나타난다. 이는 정형의 형태에서 극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문학치료의 현상이다.

해질녘 외가에는 주인을 잃었는데
담쟁이 말라붙고 잡풀만 무성하고
바람이 데려다놓고 낙엽하나 누었네

-정유광의 시조 <해질녘 외가에는> 전문

이 시조는 초장에서 종장에 이르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불투명하고 잘 맞지 않다. 마지막 음보의 어감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문장의 전체가 썩 어울리지 않는 시조이다. 이것이 자유시라면 시적 자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나, 시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시조는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체는 엄격한 정형 시조의 정확한 표현에 의해 정확하게 치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시와 시조의 차이로써 시조만이 시행할 수 있는 문학치료의 정확도를 수반한 우월성이다.

시조는 화살이 과녁의 중앙을 관통하듯 시어가 인체의 중앙시스템을 관통하도록 창작될 때 치료의 효과가 극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시조를 댓글로 빠르게 짓다 보면 이런 오류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창작품이나 문장에는 인류 혹은 집단의 공통적인 정서가 소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체는 잘못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수정을 요구하자 작자 정유광은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이 시조는 여러 부분이 갖추어지고 유려한 흐름으로 여유롭고 성숙하게 창작되었다. 김기웅의 조언도 이 작품이 훈련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단어와 이미지와 감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감동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바꾸는 데에 기여하는 타자의 도움은 치료의 현장에 개입하는 새로운 또 하나의 덤의 즐거움이다. 함께 하는 치료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치료의 효과는 배가 된다. 김기웅도 댓글로 논하며 치료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노을빛 들녘에는 잡풀만 무성하네
주인을 잃었는지 담쟁이 말라붙고
바람은 쓸쓸하게도 낙엽하나 남겼네

-정유광의 시조 <노을빛 들녘에는> 전문

이 시적 정서는 쓸쓸함 그 자체다. 그러나 그 허전함이 풍요롭게 비쳐진다. 그것은 우리 인체의 쓸쓸함이 자연의 그것을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의 쓸쓸함이 인체에 전이(Transference) 되어 인체의 쓸쓸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지라도 인체의 쓸쓸함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 여기에 문학치료의 성격이 있다. 문학치료라는 것은 단번에 회복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정되게 하거나 인체의 오류를 회복하게 한다면 이것을 문학치료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온전한 치료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새가 날아올라 전선에 나란하네
걸음을 켑충켑충 서둘러 통통튀니
골목에 구비길마다 둥근해가 빠집네

-손미현의 시조 <참새가 날아올라> 전문

이 시조는 초장과 종장의 문장을 좀 더 고쳐보라고 지시해 보았다. 손미현과 김기웅이 함께 의논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완성되었다. 김기웅은 타자의 시조에 접근하는 왕성한 필력을 소유하고 있다.

참새가 전선위에 나란히 앉았다네
걸음을 켑충켑충 서둘러 통통튀니
골목길 굽이굽이에 둥근해가 빠집네

-손미현의 시조 <나란히 앉았다네> 전문

시조의 맛이 한결 살아났다. 이 시조는 종장의 “둥근해가 빠집네”에서 절정이다. “빠집네”를 “빠집네”로 어감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시적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초장에서 나란히 앉아있는 참새들을 보여주고 종장에서 그 참새들이 발로 통통 건것줄을 흔드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고 종장에서 그 통통 튀는 건것줄로 인해 힘을 얻은 둥근해가 “빠집”은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즉 종장에서 참새들이 통통거리니가 둥근해가 골목길을 빠집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얼굴을

빠끔하게 내보이며 굵이굵이를 빼집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언어의 유희의 틀인 시조에 의해 인체는 구석구석(굵이굵이)까지 치료의 효과를 견인하게 된다.

미소는 꽃위에서 하이얀 나비되고
언어는 풀잎에서 이슬로 구르는데
눈빛은 청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졌네
-전양우의 시조 <미소는 꽃위에서> 전문

필자는 작자에게 이 작품의 전체가 한 문장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했고 초장의 “나비되고”와 종장의 “따졌네”를 바꿔보라고 해서 작자가 다음과 같이 작품을 바꾸게 되었다.

미소는 꽃위에서 하이얀 나비일레
언어는 풀잎에서 이슬로 구르는데
눈빛은 청하늘에서 별이라도 딸레라
-전양우의 시조 <미소는 꽃위에서> 전문

그렇게 하자 이 시조는 이렇게 전양우의 좋은 작품이 되었다. 각 장의 첫 음보에서 주격조사를 사용하여 ‘미소는’, ‘언어는’, ‘눈빛은’ 등으로 시적 기대감과 긴장력을 높였고 각 장의 둘째음보가 처소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여 ‘꽃위에서’, ‘풀잎에서’, ‘청하늘에서’라고 표현한 시적 구도도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초장의 4째음보 ‘나비일레’, 종장의 4째음보 ‘딸레라’의 표현으로 시어를 바꾼 것은 이 시조에 음악성과 정형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문학치료적 약성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이 작자는 시조를 쓰면서 시조의 매력에 자꾸 빠져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럴 때마다 일상의 생활에도 활력과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 삶이 기쁘고 희망차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시조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다음의 시조를 보자.

시조로 시작하는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에 한편이상 써야만 일이되네
운택한 삶에희망과 기쁨주는 것이네
-김정자의 시조 <하루가 즐거워요> 전문

한국의 정형시에서 종장의 첫 음보가 관형형이 되려면 다음에 오는 단어가 주어라 되어야 시조가 좋아진다. 즉 관형형 다음에 오는 단어에 주격조사 혹은 소유격 조사가 오면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첫 음보 관형형 뒤의 단어가 또 다른 주어나 단어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면 작품이 좋아진다. 이것은 시조의 종장의 첫 음보의 귀중성과도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시조로 시작하는 하루가 즐거워요
하루도 안빠지고 한수를 써야지만
운택한 삶의 나무가 푸릇푸릇 꿈꾸네
-김정자의 시조 <하루가 즐거워요> 전문

시조가 이렇게 좋아졌다. 품격 있는 희망과 치료의 언어가 완성된 것이다. “삶에”가 “삶의”가 된 것이다. 조사가 바뀐 것이다. “써야지만”을 사용함으로써 시적 긴장감도 극대화 시키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작품의 종장에 나오는 “운택한 삶에희망과 기쁨주는 것이네”와 수정 후 작품의 종장에 나오는 “운택한 삶의 나무가 푸릇푸릇 꿈꾸네”의 시적 감흥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또한 종장만 낭송해 보아도 수정되어 잘 창작된 시어들의 일사불란한 정격의 자유는 한껏 치료스럽다. 이렇게 잘 처방된 정형의 시조는 극한 문학치료의 약으로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체에 대한 문학치료의 기제는 신이 준 선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작품의 저자는 신앙으로 살아오다가 시조의 매력을 알고부터 삶이 즐거워졌다고 말한다.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허전한 일상이 딱 찬 듯한 희열과 감동으로 이어져 삶의 하루하루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이 준 언어를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타인과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깊은 수렁과 고립의 섬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깨어진 우물안에 달빛이 떠오르니
바람이 휘적휘적 소식을 저어오네
반짝인 눈물을 따라 그리움을 전하네
-양애희의 시조 <깨어진 우물안에> 전문

이 작품은 종장의 첫음보 ‘반짝인’ 이 ‘반짝였다’ 에 준하는 과거 시제형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종장의 마지막 음보 ‘전하네’ 와 어울리는 현재 시제형으로 바꿀 것을 주문하자 작자는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깨어진 우물안에 달빛이 떠오르니
 바람이 휘적휘적 소식을 저어오네
 빛나는 눈물을 따라 그리움을 전하네
 -양애희의 시조 <깨어진 우물안에> 전문

이렇게 시조의 정서가 앞의 과거 시제형의 느낌에서 현재 시제형의 느낌으로 달라진다. 그러면서 시적 시제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 시적 시제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은 문학적 기제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과 같다. 또한 느낌이 현재 시제형이 된다는 것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지금 여기서” 바로 치료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채연숙은 그의 책 「글쓰기치료」에서 “최근 들어 대부분의 치료 이론들은 ~ ‘지금 여기’의 체험” 을 언급하고 있다[12]. 또한 이 문장이 항상 현재이므로 이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현재 시제형으로 인체의 뉴런은 지각한다. 그래서 치료 효과는 현재, 지금 여기서 계속하여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것이 문장의 기능이나 인체의 지각 기능을 바꾸어주는 치료적 효과를 견인한다. 각 작가들이 문장을 바꾸는 시조 창작에 참여하여 바뀐 문장들을 보면서 서로 탄성을 지르거나 감탄하게 되는데, 이 탄성과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인체의 정서의 젓꼭지에 꼭 맞게 시냅스 되어 인체의 텍스트를 바꾼 결과이며 극한 탄성과 극한 감탄 중에 감동의 호르몬(다이돌핀 등)이 계속 분비되어 인체는 치료 중으로 “지금 여기서” 현재진행형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시조의 서술은 처음부터 “깨어진 우물” 로써 인체의 극한 트라우마 혹은 극한 오류를 지적한다. 그러나 창작과 수정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리움’ 이라는 단어를 띄워 눈물의 카타르시스를 경험케 한다. 이 시조에는 그래서 잔잔한 반전의 기제가 깔려 있다. 인체의 치료는 반전의 과정을 거듭하는 것이다. 급하지 않게 잔잔한 물결처럼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의 뼈다귀에 스며들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의 뼈다귀로 맞추어 주는 것이다. 이

렇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치료해 주는 것이 문학치료의 과정이다.

4) 종장(결론)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

극한 정형의 시조는 시간의 극한 에너지이다. 시간을 채집한 것이 시조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각인된 경험을 극한 서정과 극한 정형의 글로 나타내는 것이 시조인데, 그 경험이 시간의 에너지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시간이 없다면 경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의 에너지를 간직한 시조는 경험과 더불어 시간의 극한 산물인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쓰는 시조는 시간을 채집한 것이 되는 것이다.

잘 창작된 시조는 시조의 초장과 중장에서 길게길게 이어져 온 시간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종장에서 팽배해져 시한폭탄처럼 터져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시조는 시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조를 많이 쓰면 삶의 에너지가 충전된다.

시조는 시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조의 틀은 초장과 중장에서 시간들을 모아 팽팽해진 종장에서 모든 시간의 힘을 쏟아놓게 되어있다. 이것이 기승전결의 핵심이다.

만약에 보의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한다면 보의 물을 조금씩 흘려 내리는 것은 초장이고 좀 더 많이 흘려 내리는 것은 중장이며 폭포처럼 마구 쏟아내리는 것이 종장이다. 그래서 보가 가득 차야 물이 흘러내리듯 시적 경험이 가득 차야 시간의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조이다. 여기서 ‘보’ 는 마음의 저수지이며 보의 물을 흘려 내리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 즉 시조 창작의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시조 창작의 행위는 시간을 채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한 정형의 시조는 시간의 극한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된다.

시조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므로 시조는 또한 시간의 노래이다. 그래서 시조는 時間의 時자와 律調의 調자를 사용하여 時調라고 쓴다. 이 時調는 時節歌調의 준말이기도 하다.

태양이 화안하게 아침을 밝혀주네
 시간이 흐를수록 태산은 높아가도
 열정을 불태워가며 한 수 잡아 보려네
 -송정민의 시조 <태양이 화안하게> 전문

이 송정민의 시조는 기승전결의 과정에서 종장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초장에서 태양이 아침을 밝혀주는 상황이 나왔고 중장에서 태산이 높아지는 상황이 나왔다. 그렇다면 종장에서는 초장과 중장보다 더 강렬한 시어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시조가 살아나는 것이다. 또한 중장에서 2개의 구 혹은 2개의 절이 나오게 되면 문장의 힘이 분산된다. 물론 두 개의 절이나 구가 나오면서 힘을 모아주거나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은 “열정을 불태워가며”에서 힘을 쏟고 나서 “한 수 잡아보려네”라고 하면서 맥이 풀려버린다. 시조는 끝까지 긴장의 문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시조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더욱 좋은 시조의 형식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작품의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시적 리얼리티는 강력하게 설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열정을 불태우며 수평을 깊어보네
시간이 당겨져서 땃줄은 길어지고
태양이 아침마당에 불을 활활 밝히네
-필자의 시조 <시간이 당겨져서> 전문

이렇게 바꾸어보면 초장의 내용도 태양에 대한 것이고 중장의 내용도 태양에 대한 것이고 종장의 내용도 태양에 대한 것이다. 점층법으로 결론을 향해 더 강렬하게 빛이 발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시인의 마음의 열정인 것이다. 이렇게 시조는 항상 초장에서 출발하고 중장에서 마치는 것이다. 초장과 중장과 종장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속성을 지니고 있게 하는 것이 시조 창작의 최고의 고수들이 쓰는 문학치료적 작법이다. 송정민의 다른 시조를 보자.

사라진 뒷모습이 가슴에 숨어드네
뜨거운 눈시울은 눈 속에 녹아드니
꽃샘은 칼바람으로 허허벌판 헤매네
-송정민의 시조 <사라진 뒷모습이> 전문

필자는 이 시조에 대해서 종장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힘 있게 고쳐보라고 했다. 그러자 작자는 다음과 같이 종장을 고쳤다.

사라진 뒷모습이 가슴에 숨어드네
뜨거운 눈시울은 눈 속에 녹아드니
꽃샘이 발길질하니 꽃봉오리 터졌네
-송정민의 시조 <사라진 뒷모습이> 전문

송정민의 시조의 종장이 변했다. 그러면서 종장에 힘이 실렸다. 이 종장은 해학적인 표현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어쩌면 자꾸만 고쳐야 하는 문장에 대해 마음이 꼬여 심통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꽃샘이 발길질하니 꽃봉오리 터졌네”라고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해학이 문장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필자의 책 「時調의 型式과 活用」에서 [8] 혹은 가르치면서 누차 필자가 강조해 오던 바이다. 송정민은 이렇게 해학적인 작품을 만들며 이웃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그래서 타자의 입장에서 감상하고 있던 멤버들은 갑자기 수정된 시조에 몰입하며 바뀐 종장을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문장에 대한 집중력을 일상에 대한 집중력으로 대입시켜 생활해 나가고 있다.

철저한 정형으로 글귀를 조합하네
초장과 중장까지 힘겹게 맞췄지만
종장은 삼오사삼에 꽉막히고 말았네
-홍문식의 시조 <철저한 정형으로> 전문

홍문식의 이 작품은 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조의 힘이다. 이 시조를 보면서 문학적 시냅스에 의해 인체의 뉴런의 시냅스를 생각하게 된다. 문학치료의 약은 어쩌면 딱 막힌 듯한 문장들을 제조한 것일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둥근 모양과 사각의 모양이 서로 어울릴 수 없듯이 인체와 문장은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체와 문장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틀을 지니고 있어야 문학은 인체에 스며들어 치료의 약이 될 수 있다. 문학의 에너지가 인체에 스며들게 하기에 좋은 방법은 문학텍스트적 기체가 인체에 내재되어 있는 텍스트와 감성의 신호 체계와 꼭 맞게 하는 것이다. 그때, 치료의 효과는 극하게 결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말하듯이 “종장은 삼오사삼에 꼭 막히고 말았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육체의 틀에 꼭 막힌 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딱 막힌, 즉 엄격한 정형의

시조를 창작해야 친인체적인 문학의 틀이 된다. 정형으로 엄격한 시조는 친인체적인 문학의 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형의 시조를 엄격하게 창작했을 때 인체는 극한의 치료의 상황을 엄격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를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양애희의 시조이다. 종장에 힘을 몰아주어 시조가 산뜻하게 생명력을 찍어내고 있다.

바람을 환전하니 우물이 굴러가네
 위독한 달덩이를 오오래 바라보면
 사과에 이 찍는 속도로 태양광이 치솟네
 -양애희의 시조 <바람을 환전하니> 전문

양애희의 시조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만큼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말이다.

초장에서 “우물이 굴러가네”, 종장에서 “위독한 달덩이”, 종장에서 “사과에 이 찍는 속도로 태양광이 치솟네”로써 기승전결의 과정에서 점점 더 점층법으로 시문의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 혹은 감동의 무게감은 “우물이 굴러가네” <“위독한 달덩이” <“사과에 이 찍는 속도로 태양광이 치솟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초장과 종장과 종장의 관계가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의 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지막 말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과 같다. 이때 치료의 에너지가 마지막이라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마지막 문장에서 극하게 상승된다고 할 수 있다.

‘사과에 이 찍는 속도’가 ‘태양광이 치솟는’ 속도와 같을 수는 없다. 어찌면 ‘사과에 이 찍는 속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사과를 먹을 때 이로 깨무는 과정인 것인데 그거 별로 속도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란 시어가 달려오면서 마치 ‘이 찍는 속도’가 태양광처럼 현란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이것은 “이 찍는 속도”에 “태양광이 치솟는” 속도가 스며든 것이다. 시어와 시어가 시냅스 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 찍는 속도”라는 시어를 “태양광이 치솟”는다는 시어가 생명력 있게 시냅스 한 경우이다. 이는 문장의 기능을 넘어서는 마음의 현을 두드리는 것으로써 이때 인체의 뉴런의 시스템과 문장의 뉴런의 시스템은 동일하게 반응하게 되어 인

체의 치료에 관여하게 된다.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찌면 착각이 아니라 인체의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신경의 신호에 따라 산출되는 치료적 영상이나 느낌이나 의미이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라 인체의 신호체계에 이미 존재하는 신비의 치료적 작용인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창작에 빠지는 이유이다.

이 시조에서 또 하나 더 착각케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종장의 둘째 음보가 5자이어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이 찍는 속도로”이므로 6자인 것이다. 이것은 “태양광이 치솟네”라는 시어가 얼마나 빠르고 강렬한 이미지인지 6자에서 한 자를 탈락시켜 독자가 5자로 착각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조는 글자 한 자가 많아짐으로 해서 정형의 시조에서는 벗어나 있다. 종장의 둘째 음보를 5자로 맞게 하려면 “이 찍는 속도로”를 “이 찍는 듯이”라고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야 정격에 맞아 정형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정함으로써 기존의 작품보다 수정된 작품의 감흥과 감각이 배가 되어 쏟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로’라는 글자 하나가 걸림돌이 되어 태양광의 속도를 저해한 것이다.

착각이라는 것,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흥분하고 행복해 하듯이 문학치료는 그렇게 상상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어찌면 문학은 착각 그 자체이면서 마음 혹은 인체의 치료약이 된다. 그러면서 그 착각이 착각이지 않는 인체의 신비에 관계하고 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곳, 어느 차원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감성의 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양애희의 또 다른 시조이다. 종장은 시조의 심장의 발동기가 되어 있다.

쌀쌀한 풍경들이 뽁뽁 서 있다네
 마음이 바람처럼 휘휘 소리내도
 심장에 발동을 걸어 영차영차 왔다네
 -양애희의 시조 <쌀쌀한 풍경들이> 전문

종장에 발동기가 있는 이 시조를 보라. 양애희는 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심장에 발동을 걸어”라며 종장에 발동기까지 달았다. 어찌면 인위적인 것 같은 이 시도가 얼마나 막강한 치료의 힘을 소유하게 되는지 작품을 읊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심장에 발동기를 달

았다는 시어는 치료의 엄청난 삶과 죽음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잘 보라. 초장의 문장에서는 거의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 “쌀쌀한 풍경들이 꿈꿈 서 있다네”라며 아예 에너지의 흐름을 ‘꿈꿈’ 얼려버리고 만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약간의 힘을 부여한다. 이는 중장에서의 막강한 회오리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중장에서는 ‘횡횡’ 흔들리는 마음의 소리를 내뱉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급사 직전에 있는 시어들을 살려내기 위해 시조의 심장에 발동기를 거는 것이다. 이 엔진의 시동으로 인해 이 시조는 “영차 영차” 힘을 둔구어 살아나는 것이다. 종장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초장과 중장에서 거의 힘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기법을 사용한 것이고 중장에서는 마치 인위적이거나 한 것처럼 발동기까지 달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종장은 “심장에 발동을 걸어 영차영차 왔다네”로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양애희는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그룹에서 필자가 지도하고 있는 시조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문장을 대입할 줄 아는 시인이다. 그래서 ‘쌀쌀한 풍경’이 ‘꿈꿈’ 서있는 것처럼 아파하는 인체의 심장에 따뜻한 발동기를 걸어 ‘영차영차’ 일으키는 치료의 극한 정형의 시조를 창작할 줄 아는 시인이다. 양애희는 이러한 작품력으로 인해 “한국의 정형시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파도가 찰랑찰랑 기억을 슬어놓네
모래를 가다듬고 거품을 토닥이니
물에다 새긴 맹새가 툭툭 붉게 오르네
-양애희의 시조 <툭툭 붉게 오르네> 전문

이 시조에서는 의태어 혹은 의성어의 사용이 시조의 종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경우이다. 초장에서는 “찰랑찰랑”, “슬어놓네” 중장에서는 “토닥이니” 그리고 종장에서는 “툭툭 붉게 오르네”의 시어들이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다. 정형의 시조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피라미드형의 안정된 균형이다. 초장의 “찰랑찰랑”보다 종장의 “토닥이니”보다 종장의 “툭툭 붉게 오르네”가 한층 힘의 강도를 강하게 한 것이다. 만약에 “툭툭 붉게 오르네” 대신 “툭툭 붉게 오르네”로 종장을 마무리했다면 종장의 “토닥이니”와 거의 비슷한 힘의 크

기로 되어 중장과 종장의 격이 중복되어 종장의 격은 중장답지 못한 경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툭툭’보다 좀 더 센 말인 ‘툭툭’을 넣음으로 해서 종장의 격을 살려내고 종장에 힘을 실어준 경우이다.

다음은 김정자의 시조다.

그대가 밀려와서 하얗게 그리웠네
온밤내 춤을추는 그대는 눈부셨네
해뜨자 너무보고파 아무일도 못하네
-김정자의 시조 <그대가 밀려와서> 전문

이 김정자의 작품은 중장에 이은 종장의 내용이 너무 급하게 다가온다. 초장을 읽고 여운을 느끼며 중장을 읽었는데 중장을 읽고 여운을 느끼기 전에 종장의 느낌이 와버리는 것 같은 경우이다. 여운을 느끼게 되면 문장의 치료적 에너지를 넉넉하게 포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문장의 흐름의 느낌이 급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된다. 이때에는 중장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가 없다. 문학치료는 여운도 적절히 가미해야 치료의 시간이 길어진다. 치료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작동되는 치료의 에너지를 인체에 있는 마음의 보에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작품의 종장은 “해뜨자”라는 시어에서 급해진 다. “해뜨자”에서 ‘자’는 ‘~자마자’의 뜻이 내포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독자에게 언뜻 다가오는 느낌은 “해뜨자마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자’의 사용이 문제이다. 종장의 첫 음보의 ‘자’를 시간이 연장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어로 바꾸어주면 된다. 그것은 바로 ‘니’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품이 종장의 첫 음보에서 어미 하나만 바뀌게 되어 “해뜨니”로 되었다.

그대가 밀려와서 하얗게 그리웠네
온밤내 춤을추는 그대는 눈부셨네
해뜨니 너무보고파 아무일도 못하네
-김정자의 시조 <그대가 밀려와서> 전문

이렇게 글자 한 자 차이로 이 시조는 그 치료의 정격의 격이 드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시조의 행간에 치료

의 에너지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 여유는 치료의 에너지를 많이 모아 놓을 수 있는 정격의 틀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마음의 행간에 시조의 각 부분에 시간이 연장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조의 에너지가 강렬해지기 위한 고단위의 테크닉이다.

다음은 필자의 시조이다.

오징어 씹으면서 그년을 씹어보네
간간한 바다향이 상큼한 젓꼭지네
오늘은 씹고 또씹어 하늘마저 파랑네
-필자의 시조 <간간한 바다향이> 전문

저속한 것 같은 시어가 저속하지 않게 사용되게 하는 것은 좋은 시조의 작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작품을 보면 <오징어를 씹네→그년을 씹어보네→상큼한 젓꼭지네→씹고 또 씹어 하늘마저 파랑네>로 시어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시어들은 “하늘마저 파랑네”라는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끌어온 시어들이다.

중장에서는 오징어를 씹으면서 그년을 씹어본다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장에서는 씹히는 것이 상큼한 젓꼭지로 이어지고 중장에서는 마침내 하늘마저 파랑다는 이미지로 결정될 만큼 씹고 또 씹는 행위를 불러오고 있다. 씹는 행위로 인해서 하늘이 파랗질 수는 없지만 그 앞의 시어 “상큼한 젓꼭지”와 “씹고 또 씹어”라는 말이 시냅스 하면서 연상 작용을 일으켜 당연히 “하늘이 파랑네”라는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길뉘이를 한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 중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상큼한 젓꼭지”이기도 하지만 “씹고 또 씹어”라는 반복을 나타내는 어구에 의해서이기도 하다. 이 반복이 중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장에서 중장의 힘을 키워주는 시어를 꽂아놓고 그 시어가 중장에서의 단어의 반복과 어울리게 하는 방법에 의해 중장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시어와 시어를 쇼트(short) 시키는 것이다. 쇼트(short) 되어 에너지가 불꽃을 뿜기며 급상승하는 것이다. 중장의 시어 “상큼한 젓꼭지”와 중장의 시어 “하늘마저 파랑네”가 쇼트(short) 된 것이다. “씹고 또 씹어”가 이해된다면 이는 중장과 중장의 쇼트(short) 현상이다. 시조도 반복하여 읊거나 읽어주면 문학치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리들의 쇼트(short)에 의한 것이다. 그것도 오로지 정형의 틀 안에서의 반복이 엄격한 쇼트(short)를 발생시킨다. “씹고 또 씹어”에서는 시어 ‘씹고’와 ‘씹고’가 가까이 쇼트(short)되고 있다.

또한 두 개의 연속된 절에 의해서도 중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두 개의 절이 쇼트(short)되고 있다. 중장에서의 절의 연속으로 인한 힘의 상승에 대한 원리를 잘 배운 조성화는 다음과 같이 창작했다.

흙집에 살러가는 오늘을 잊을손가
화구를 담은 곁에 시집도 꾸리누나
여정이 시гур로 피네 태생으로 번지네
-조성화의 시조 <화구를 담은 곁에> 전문

이 작품을 보면 중장이 “여정이 시гур로 피네 태생으로 번지네”인데, 이 내용은 여정이 시гур로도 피고 태생으로도 번진다거나 시гур로 된 다음에 태생으로 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정’이 시гур로 피는 과정의 에너지를 받고 있고 더하여 태생으로 번지는 과정의 에너지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에서 이미지 혹은 에너지의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치료적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гур로 피네”와 “태생으로 번지네”는 절의 반복이다. 마치 양애희의 발동기를 거는 상황과 같다. 중장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위해 두 개의 절이 발동기처럼 힘차게 쇼트(short)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시조에서도 그렇다.

불면의 붓을 놓고 빈잔을 들어보네
화원에 피고지던 애락(哀樂)이 떠오누나
화들짝 잔이 차오네 화폭(畫幅) 위로 넘치네
-조성화의 시조 <불면의 붓을 놓고> 전문

아래의 작품을 보자.

네년의 몸뚱아린 금으로 만들었나
발바닥 닳을까봐 꼼짝을 하지않네
차라리 황금이라면 무좀 나도 좋으리
-필자의 시조 <차라리 황금이라면> 전문

이 작품은 중장에서 “황금”과 “무좀”을 대비시켜서 “황금”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무좀도 황금이라면 좋다고 말하며 황금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꼬고 있다.

이렇게 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하급의 가치인 것을 함께 출현시켜 비교되게 함으로써 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달큰한 봄향기가 하늘에 번져가네
상큼한 꽃수레가 덜커덩 튀어올라
철쭉이 수줍어하며 온천지를 메우네

-손미현의 시조 <달큰한 봄향기가> 전문

이 손미현의 작품은 중장과 종장의 연합을 잘 이루어냈다. 이 방법은 중장에서 힘을 터뜨려 주고 그 연결선상에서 종장의 힘의 꺾꽂이를 건들어서 종장의 에너지가 확장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초장의 “하늘에 번져가네”가 중장의 문장에 힘을 전달하고 종장의 “덜커덩 튀어올라”가 종장의 문장에 힘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되어 “온천지를 메우네”의 흐름이 된다. 그래서 종장의 힘이 제일 강력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개의 문장이 쇼트(short)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쇼트(short) 되는 것은 시냅스(Synapse)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쇼트(short) 되는 것은 시냅스(Synapse) 되는 것보다 더 강렬한 현상이다. 거의 부딪쳐서 불꽃이 일기 때문이다. 이때 문장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그래서 철쭉의 홍조 띤 얼굴이 온천지를 덮게 되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시조의 궁극적인 종장의 목표는 철쭉의 만개(滿開)에 있다. 그래서 종장은 “철쭉이 수줍어하며 온천지를 메우네”로 결정되어야 한다. 수줍은 철쭉이 온천지에 만발하는 영상을 띄우는 것이 이 시조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철쭉이 온천지에 만발하는 그 궁극적인 힘의 물꼬는 중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중장은 바로 “상큼한 꽃수레가 덜커덩 튀어올라”인데 꽃수레가 덜커덩 튀어오르자 그 덜커덩 튀어오르는 에너지가 종장의 문장에 전달되어 철쭉이 (덜커덩) 만개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온천지” 즉 온 세상에 철쭉이 만개하는 힘은 역시

초장보다 또 중장보다도 더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종장은 그 힘의 세기가 초장<중장<종장의 형식이 된다.

이는 마치 로켓(rocket)의 원리와 같다. 로켓은 높은 에너지를 분출시켜 그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것인데 이 시조의 중장이 종장을 띄워 올리기 위해 바로 그 추진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조는 로켓(rocket)의 3단 추진체의 원리를 닮아있다. 시조는 로켓(rocket)의 3단 추진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시조의 초장과 중장이 1단계 추진체, 2단계 추진체가 되어 종장의 문장이 튀어 오르도록 폭발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중장은 인체에 시냅스하기 위한 3단계 추진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시조의 3장은 마치 로켓의 3단 추진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 각 단계마다 문장들이 쇼트(short) 되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종장이 제일 큰 힘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종장의 추진체가 꼬리에 시간의 긴 여운을 남기며 우리의 인체와 시냅스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장과 인체와의 시냅스를 치료의 과정으로 본다.

웅크린 가슴뼈가 찌억쩍 금이 가니
우주가 몸을 받고 별빛이 도록되네
물속에 살던 겨울이 팔닥팔닥 나오네

-양애희의 시조 <물속에 살던 겨울이> 전문

이 작품은 초장과 중장이 살벌하다. 그래서 작자에게 고쳐보라고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

웅크린 풍경들이 유유히 흘러가네
우주가 몸을 받고 별빛이 반짝이니
물속에 살던 겨울이 팔닥팔닥 나오네

-양애희의 시조 <물속에 살던 겨울이> 전문

이 시조 역시 손미현의 작품처럼 중장과 종장의 연합을 잘 이루어냈다. 중장에서 “별빛이 반짝이니” 중장에서 겨울이 “팔닥팔닥” 나오는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 에너지가 “팔닥팔닥”으로 연결된 것이다.

황금의 음표들로 그대가 노래하죠
 병마개 열린듯이 지해도 꽃피우고
 숙맥(宿麥)에 알이서리듯 사랑 하나 쌓이죠
 -필자의 시조 <황병속에 대한 이름시조> 전문

이 작품은 황병숙에게 필자가 이름시조를 지어준 것이다. 이 작품은 초장이 “황금의 음표”, 중장이 “지혜의 꽃”, 종장이 “사랑 하나”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 초장이 제일 강력한 에너지의 가치를, 즉 황금의 가치를 소유한 언어라고 볼 수 있다. “황금의 음표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 것이다. 그래서 종장이 제일 강력한 문장이 된다. 적어도 사랑할 줄 아는 자에게는 그렇다. 이 “사랑”이 문학치료의 최상의 주제이기도 하다. 다음은 사랑을 노래한 황인영의 시조이다.

담을수 없다고 늘 생각해 보았었네
 마음을 지울 수도 있다고 자신했지
 하지만 이미 깊어진 사랑 하나 담기네
 -황인영의 시조 <미련> 전문

황인영의 작품은 평이한 서술이다. 그런데 이 시조가 종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반전의 기술 때문이다. 초장과 중장에서 사랑을 잊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깊어져 있다는 글이다.

여기에서 반전을 가져오는 음보는 종장의 첫 음보이다. “하지만”이 바로 그것인데, 앞에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초장과 중장의 이별의 정서를 뒤집고 종장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반전의 기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종장에 초장과 중장을 능가하는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시조의 기승전결은 < “~생각해 보았었네” (기) → “~있다고 자신했지” (승) → “하지만” (전) → “~사랑하나 담기네” (결)>의 흐름을 간직하고 있다.

다음은 또 다른 각도로 사랑을 노래한 이영대의 시조이다.

즐겁게 사랑하길 누구나 원하지만
 슬프게 사랑하길 누구나 피하지만
 아프게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하니라
 -이영대의 시조 <아픈 사랑> 전문

이영대의 시조에 의하면 사랑은 아픈 것이다. 그렇기에 아픈 사랑은 아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아프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조는 시어 “사랑”이 4번이나 중복되면서 각기 다른 사랑의 속성을 노래하고 있다. 각 장의 첫 음보에 “즐겁게”, “슬프게”, “아프게”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아픈 사랑의 의미에 대한 점층법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황인영의 시조와 같이 반전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 반전은 이 시조의 행간에 있다. 즉, “원하지만”, “피하지만” 등이 반전의 언어이고 이 반전의 언어가 끝난 각 장의 행간에 종장을 향한 반전의 호흡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반전의 행간을 거쳐 온 종장은 누구나 원하지 않고 피하는 “아픈 사랑”이 오히려 진짜 사랑인 것이라고 반전의 힘을 빌어 역설한다. 각 장에서 반전을 행하니 종장에 강력한 사랑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 글을 감상하는 필자도 아픈 사랑의 정의에 의해 치료될 수밖에 없는 아프지 않은 사랑의 궁핍한 존재이다.

5)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기

시조는 인체와 같다고 필자는 비유한다. 그래서 필자는 또한 문장에 있어서 조사는 인체의 관절에 비유하는데 시조에서 조사를 잘 사용하면 문장의 관절이 잘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노래된다고 극구 주장한다. 이제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다.

삼동을 주리고도 동정을 원치않고
 청량한 고운음색 사계절 넘나든다
 무소유 고귀한 천성 세상고민 없더라
 -김경량의 시조 <겨울새> 전문

김경량의 시조에서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고운음색’, ‘사계절’, ‘무소유’, ‘고귀한천성’, ‘세상’, ‘고민’ 등이다. 이렇게 문장에 관절이 없으므로 이 시조는 자유스러움을 감취당하고 있다. 인체는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스럽고자 한다. 정해진 틀은 진리이다. 예수는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말하고 있다. 시조라는 정해진 틀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려면 명사형의 시어에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조사가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같고 인체의 관절과도 같아서 시조의 흐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김경량의 시조를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다.

삼동을 주리고도 동정을 원치않네
청량한 그 음식은 사계를 넘나들고
청빈한 귀한천성이 고민 하나 없구나
-김경량의 시조 <겨울새>를 필자가 수정하다.

시조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시조를 읽어보아도 막히는 부분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인 것이다.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 는 진리(틀) 안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말한 구원의 문장이면서 정형의 문학치료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일과를 채워들고 거리를 걸어가면
저마다 숨가쁘게 생활을 다듬는데
오늘도 부족한 몸이 하루해가 짧구나
-전양우의 시조 <일과를 채워들고> 전문

위는 전양우의 시조이다. 시조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서술형의 마무리가 잘 나오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이 모두 종장에 이어져 있어 하나의 문장이 되고 있다. 되도록 3개의 문장 혹은 최소한 2개의 문장의 형식을 띠는 것이 좋다. 시조의 호흡을 말하면 3개의 문장이 제일 알맞은 호흡이기 때문이다.

이 시조에서 조사에 대하여 말하면 종장의 “몸이” 에 있는 ‘이’ 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는 주격조사로서 “하루해가 짧구나” 라는 시어와 어울리지 못해 문장의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수정해볼 것을 권하자 전양우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일과를 채워들고 거리를 걸어가면
저마다 숨가쁘게 생활을 다듬는다
오늘도 부족한 몸에 하루해가 짧구나
-전양우의 시조 <일과를 채워들고> 전문

이렇게 작품이 바뀌었다. “몸이” 가 “몸에” 로 바뀌었다. 이제 작품의 감상에 혼란이 일지 않는다. 아직도 “다듬는다” 는 표현은 어색하게 남아있다.

거울에 그녀에게 미소를 띠어보네
슬픔과 괴로움은 먼지로 털어내고
마음은 비눗방울에 무지개를 띠우네
-송정민의 시조 <거울에 그녀에게> 전문

이 시조는 조사가 잘 못 사용되었다. 바로 ‘겨울에’ 에서 조사 ‘에’ 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우고 있는 것이므로 조사 ‘의’ 가 사용되어야 한다. 서술어 부분도 약간은 어색하다. 그래서 송정민은 다음과 같이 조사 ‘에’ 를 ‘의’ 로 바꾸고 서술 부분도 바꾸게 되었다.

거울의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보네
슬픔과 괴로움은 먼지로 털어내고
마음은 비눗방울에 무지개를 띄웠네
-송정민의 시조 <거울의 그녀에게> 전문

작품이 훨씬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 자연스러움이 치료의 좋은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 를 지도하면서 조사의 사용에 대한 언급을 수시로 하고 있다. 예상 외로 조사의 사용이 잘 안 되는 현실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지금까지 시조에 대한 교육의 지침이 부족한 데에 있다.

6) 종장의 뺨허그(BackHug)*

시조에서 종장의 뺨허그(BackHug)에 대해 알아보자. 문장의 뺨허그는 문학치료의 기제로서 사용된다. 앞 문장의 슬픔과 이쁨과 고독 등의 트라우마를 뺨허그하며 뒷문장이 치료해 가는 구조이다. 그래서 시조의

* 필자는 본고에서 뒤의 문장이 앞의 문장의 영향을 받거나 혹은 앞의 문장이 뒤의 문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문장의 뺨허그(BackHug)” 라고 한다. 그러면서 시조에 있어서 종장에 관계되는 것은 “종장의 뺨허그(BackHug)” 라 기술한다.

초장과 중장이 트라우마의 구조라면 종장은 그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구조가 된다.

해맑던 그얼굴이 그림계 사라졌네
계곡의 바위틈엔 고독이 켜겨있고
어이해 하얀 눈들만 싹싹싹 내리네
-필자의 시조 <싹싹싹 내리네> 전문

시조는 초장과 중장에서 드러낸 감성을 종장이 끝내 다 하얀 속옷(= “하얀 눈들”, 감추어진 정서)으로 깎아 입는 것이다. 이 시조의 정서는 <하얀 속옷 →하얀 눈→해맑은 그녀>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종장에 나오는 “하얀 눈들만 싹싹싹 내린다”는 말은 평이한 서술이나, 초장과 중장의 한이 녹아들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극한 정서를 정격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승전결의 묘미이며 맛이다.

초장과 중장의 트라우마의 정서를 종장의 “어이해”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종장이 초장과 중장을 안아서 뺨허그를 하며 가고 있는 고품격 정서가 산란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작자의 카타르시스는 종장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바로, 그림던 그년 얼굴이 하얀 눈발이 되어 싹싹싹 내리고 있는 것이 카타르시스의 풍경이다. 그녀와의 만남은 시조의 고품격 정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의 정서이기 때문에 ‘차가운 눈’이 오는 것이고 그것도 ‘싹싹싹’ 한의 울조로 내리는 것이다.

“중장의 뺨허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의 뺨허그”도 있다. “해맑던 그얼굴이 그림계 사라졌네”라고 말하는 초장에서 그리운 사랑이 떠나갔으므로 중장에서 “계곡의 바위틈엔 고독이 켜겨있고”라고 나오는 것이다. 떠나간 후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중장이 초장을 업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장의 뺨허그이다.

중장의 뺨허그, 중장의 뺨허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초장은 뺨허그를 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초장도 뺨허그를 한다. 초장은 작자의 마음을 업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초장의 뺨허그이다. 또한 중장이 초장을 업고 있으니 자동으로 초장의 뺨허그가 성립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조는 3장이 다 뺨허그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3각의 뺨허그가 되는 것인데 이는 또한 기승전결의 뺨허그인 것이다. 시조는 이렇게 뺨허그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시조의 각 장이 혹은 각 구나 각 음보들이 서로 뺨허그 하게 창작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의 정형시 시조”의 그룹에서 창작 지도를 받는 황병숙의 시조이다.

동백이 눈서리에 꽃등을 밝히었네
흰눈에 토하듯이 사랑을 불태우고
꽃밥에 눈물담고서 빛이나게 지누나
-황병숙의 시조 <흰눈에 토하듯이> 전문

위 시조의 기승전결의 과정은 <초장은 “꽃등을 밝히었네”(기)이고 중장은 “사랑을 불태우고”(승)이며 종장은 “꽃밥에 눈물담고서”(전), “빛이나게 지누나”(결)>이다.

초장에서는 빛을 밝히고 종장에서는 빛이 사라지는 과정이다. 꽃이 지는 과정을 “빛이나게”로 수식하면서 꽃이 지는 과정의 슬픔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면서 꽃이 지는 행위를 숭고한 정신의 세계로 진입하는 승화의 경지로 직조한다. 이 시조는 그래서 종장에 강력한 에너지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반전의 미학을 터득하는 셈이다.

박찬부는 “에로스라 죽음”을 이야기한다[10]. 이 시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꽃밥에 눈물담고서 빛이나게 지누나”에서 지는 것(지누나)의 에너지가 타나토스(Thanatos, 죽음본능)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면 빛의 에너지(빛이나게)는 에로스(Eros, 생명본능)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죽음과 생명의 에너지를 적절히 버무려 죽음과 생명이 함께 하는 순간을 캡처한 것이다. 타나토스의 에너지에 에로스의 에너지가 시냅스하여 죽음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조의 종장에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의 무한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이 종장을 이루기 위해 “동백이 눈서리에 꽃등을 밝히었네”라는 초장이 왔고 이어서 “흰눈에 토하듯이 사랑을 불태우고”라는 중장이 와 있는 것이다. 이 초장과 중장을 뺨허그(BackHug)하며 황병숙의 종장은 “꽃밥에 눈물담고서 빛이나게 지누나”로 마

무리 짓는 것이다. 지는 것의 아름다움, 이러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문장의 코드가 우리의 인체와 시냅스 하여 삶의 시간을 싱싱하게 긍정적으로 치료해주는 것이다.

시조는 시간의 삼각형이다. 왜냐하면 초장의 문장의 시간의 길이와 중장의 문장의 시간의 길이와 종장의 문장의 시간의 길이가 딱 맞게 어울려 서로 맞닿아 정형의 삼각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시간의 각 3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시간의 길이의 선분들은 초장과 중장과 종장의 각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시조는 정형이어야 한다. 정형이지 않으면 삼각형을 이룰 수 있는 각이 서로 맞을 수 없고 이때 인체의 치료는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각만으로는 삼각형이 될 수 없고 세 개의 각이 있어야 비로소 3개의 선분이 이어지면(面)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시조의 3개의 문장이 이루는 시조의 틀은 이 면과 같은 것이며 시조의 내용은 입체적인 것이다. 삼각형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3개의 각의 뾰족한 세 각의 합이 180° 가 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삼각형의 정형이다. 삼각형은 정해진 극한 정형의 틀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조의 3장도 정해진 틀에 의한 음수율의 각도와 감성의 각도가 꼭 맞아야 3장의 문장의 각이 즉 세 개의 각이 서로 뾰족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 문장의 뉴런과 인체의 뉴런과의 시냅스의 각도가 맞아지는 것이다. 그 시냅스의 각도가 맞아질 때 인체는 공감을 일으키게 되고 감동의 기제를 발출하며 치료되게 된다.

그래서 3개의 문장이 뾰족그만 되면 문학치료적인 시조의 틀은 완성되는데, 초장을 중장이 엮고 그 중장을 중장이 엮는 피라미드식 뾰족그드 있지만 중장이 중장을 엮고 중장을 초장이 엮는 역삼각형의 뾰족그드 있다.

이러한 과정을 볼때 힘의 균형이 초장<중장<종장으로 이루어져야 안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인류의 불가사의한 피라미드의 원리이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종장<중장<초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역삼각형으로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의 방위에서 보면 역삼각형의 힘의 균형은 존재할 수 없고 이 역시 피라미드 형식의 힘의 원리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문장과 같이 힘의 균형이 역삼각형의 세 각의 뾰족그와 같고 혹은 피라미드형의 세 각의 뾰족그와 같은 방식이 연결되는 것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의해 조종을 받지만 아이가 크면 반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가 오는 것과 같다. “세상>부모>아이”의 구조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역삼각형의 구조인데 아이가 커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세상<부모<아이(=어른)”이 되어 피라미드형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원리 하나는 중장이 힘의 전개 과정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삼각형의 구조이든 피라미드형 구조이든 중장은 항상 가운데에 있어서 삼각형 우주의 힘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우주는 삼각형이다. 그래서 우주와 같은 시조의 중장은 초장보다 강하고 중장보다 약하면서 동시에 초장과 중장을 중개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장으로 이루어진 중간의 힘, 즉 중심(重心)이 중요하며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곳저곳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라고 말한다. 이 중심이 시조의 중장과 같은 힘의 원리에 의해 삶의 에너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중심이 우리네 삶의 다리와 같아서 중장은 초장의 고통과 고통의 섬에서 희망과 기쁨의 육지인 종장으로 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조를 쓰고 문학치료를 받는 것은 중장이라는 다리를 통과하여 고통의 에너지를 기쁨의 에너지로 바꾸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장의 뾰족그는 마치 예수의 뾰족그와 같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다 업고 신의 위치에서 업혀있다. 즉, 인간과 단절된 고통의 섬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개의 입장에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 또한 신이 인간의 세상에 온 것으로써 신이 인간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역삼각형의 힘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게 역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되지 않는 우주의 방위를 닮아있는지 생각해 보면, 예수 역시 역삼각형의 무덤에서 사망했지만 다시 부활하여 그 역삼각형이 역삼각형이지 않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장의 뾰족그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문장

혹은 구나 단어나 텍스트는 주위의 문장들을 받아들여 반영하고 판단하면서 복사하고 전사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세포가 DNA를 복제하고 전사하며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14].

IV. 논 의

본고에서 “시조야놀자”, “한국의 정형시 시조” 등의 단체에서 필자가 약 4년 간 글쓰기를 지도해온 것들을 탐색한 것을 자료로 하여 어떻게 글쓰기를 해야 문학치료의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 필자의 지도를 받아 정형시 시조에 대한 글쓰기 지도를 하는 사람과 글쓰기 지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글쓰기 지도를 하는 사람이 더욱 정형시로 인한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조 쓰기가 활성화될수록 그 문인들의 즐겁고 창조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본고의 정리를 통해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는 문학치료 효과를 더욱 확장시키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인류의 고립감과 정신적 갈등 및 각종 병증 등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의 다양한 교육과 시조의 세계화를 꼭 성공시켜야 한다.

한국의 정형시 시조는 마치 3D 프린터처럼 문학치료적 출력물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류의 정서와 느낌에 관한 감정과 감동과 의미 및 의지 등을 인체에 전자신호로 출력해 내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인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 입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혹은 고장난 인체에 대한 처방전을 입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자 신호로 인체의 내부로 쏟아져 들어온 정보들을 뉴런들이 시냅스의 과정을 거쳐서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영상과 느낌을 만들어내고 감정과 정서를 다스리고 몸을 교정하고 정화시키는 건강한 호르몬을 인체 내부에서 분비하게 한다. 이것이 문학치료의 과정이다. 문학이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정신과 몸에 대한 치료의 행위에 있는 약리작용 등을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의 틀에 의해서 즉, 정형의 틀에 의해서 문학치료가 이루어질 때 더욱 치료의 기제가 강력하게 산출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정형에 맞게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를 치료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필자는 “시조야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자와 함께 시조를 창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이 날아가 버렸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시조를 엄격히 정형에 맞게 창작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희열과 감동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덧붙여 시조의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밤이 새는 줄을 몰랐으며, 시조로 여는 아침이 상쾌하고 즐겁다고 말한다. 시조에 의한 극한 정형의 삶이 신나게 되었고 시조는 인간을 치료하는 문학치료제, 즉 문학의 약이라는 말에 절대적 동의를 표한다. 그리고 고민이 많은 날에도 시조를 보기만 하면 눈물 나도록 웃고 또 울기도 한다고 말한다. 시조 쓰기의 프로그램은 필자의 예측보다 더 긍정적이고 다양한 엄청난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

시조를 창작하며 놀이를 즐기는 이들은 눈물 나도록 웃었다거나, 너무 재미있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거나, 창작품이 극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극한 희열을 느꼈다거나, 타자에게 이름시조를 지어줄 때 타자가 너무나 좋아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들을 날마다 하고 있다.

“시조야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이름으로 창작하는 시조의 틀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이름시조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7]. 시조를 창작하면서 문인들은 시조의 문학치료의 효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날마다 긍정적인 이슈로 삼고 있다. 마음이 열리고 극하게 울거나 웃게 되면, 극하게 재미있거나 행복하게 되면, 인체에는 치료의 기제가 발동되고 다이돌핀(Didorphin)이 분비되게 된다.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인체를 치료하는 약물이다. 시조의 문장의 에너지들이 인체에 입력되어 인체 안에서 문학치료의 약물인 다이돌핀(Didorphin)을 생산하게 하는 것이다.

시조 쓰는 그룹의 멤버들은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를 엄격하게 정형의 틀대로 창작하면 더욱 쉽게 다이돌핀이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경험을 한다고 말한다. 엄격한 정형으로 시조의 창작이 완성되었을 때 말할 수 없이 흥분되고 희열을 느꼈다고 체험담을 풀어놓는다. 자

유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새로운 희열이라고 고백한다. 너무 재미있어서 엄격한 정형시에 재미를 붙이고 난 후에는 자유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정말 자유시를 쓰던 문인들도 시조에 맛 들이면 자유시를 쓰지 않고 시조만 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시조의 효과를 충분히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필자가 그들이 시조를 창작하면서 울고 웃는 상황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미 희노애락의 시조가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눈물 혹은 웃음 어린 진술들에 당당한 진정성이 담겨있음을 필자가 증언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풍들의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음이 본고에서 확인되었다.

V. 결론

한국의 정형시인 시조는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인의 삶에 우수한 삶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별하고 강력한 문학치료의 틀과 정서의 칩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과 세계적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 를 널리 교육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조가 정확한 정형의 틀로 엄격하게 시조의 세계화를 이루어내게 해야 한다.

필자는 약 4년 간 문학치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체험사례 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시조가 인체에 치료적으로 시냅스될 때 시조 중에서도 음수율 등 시조의 정격의 형식을 잘 갖춘 엄격한 정형의 시조가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형시 시조에서 더욱 좋은 시적 극대화 혹은 문학치료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한 “올바른 한국의 정형시 ‘시조’ 쓰기” 의 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본고의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기승전결을 정확하고 강렬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기승전결의 형식은 (1) 초장과 중장에서 미리 말하지 않고 중장에서 실체를 드러내는 방법, (2) 일부에서 전체로 집중하거나, 전체에서 일부로의 집중을 보여주는 방법, (3) 어감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 (4) 일상의 주체에 의한 방법, (5) 그리고 작자의 의지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조건절을 사용한 문장 등을 바꾸어 준다.

셋째, 음보나 단어의 어감 등을 연구하여 특별한 테크닉으로 사용해 준다.

넷째, 정확하고 적절한 조사를 사용한다.

다섯째, 중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조의 문장을 직조해 주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초장과 중장과 중장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속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창작법인데 중장에서 2개의 구나 절이 나와 힘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힘을 모아주는 방법. (2) 중장을 (혹은 각 장을) 해학적인 문장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 (3) 엄격한 정형의 시조로 친인체적인 문장의 틀을 만들어 주는 방법. (4) 초장에서 중장과 중장으로 진행될 때 안정적인 피라미드형의 에너지를 갖게 하되, 중장에서 시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한 착각을 유도하는 방법. (5) 초장에서 힘을 얼려놓고 중장에서 약간의 힘을 부여하고 중장에서 발동기를 달아 시어에 시동을 걸어주는 방법. (6) 중장과 중장의 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장에 센말을 사용하는 방법. (7) 시조의 각 부분에 시간이 연장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어를 사용하는 방법*. (8) 중장에서 중장의 힘을 키워주는 시어를 꽃아놓고 중장에서의 단어의 반복과 어울리게 하는 방법. (9) 중장에서 두 개의 절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주는 방법. (10) 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와 같은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하급의 가치인 것을 함께 출현시켜 비교되게 함으로써 중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11) 로켓(rocket)의 3단계 추진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시조의 초장이 1단계 추진체, 중장이 2단계 추진체, 중장이 3단계 추진체가 되어 시조의 문장이 인체의 시스템과 시냅스 되게 만드는 방법. (12) 중장에서 사랑을 완성해주는 방법. (13) 중장의 첫 음보에서 반전의 기법을 사용하거나,

* 시간이 연장되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다이나믹이 계속 분비되므로 인체에 대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느낌의 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말이 실제의 시간이 연장된다는 말만은 아니다.

각 장의 행간에 중장을 향한 반전의 호흡을 내장시키는 방법.

여섯째, 시조의 각 장이 뻗허그 하게 만들어 준다.

References

- [1]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37. 박인파. “시조를 통한 문학치료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37
- [2] Park In-Kwa. “Table 4. A Research of Awareness on the Literature Therap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64. 박인파. “표 4. 문학치료 인식도 조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64.
- [3]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40~41. 박인파. “Ⅲ. 연구결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40~41.
- [4] Park In-Kwa. “Table 1.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Neur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59. 박인파. “표 1. 문장뉴런의 구조”.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59.
- [5] Park In-Kwa. “Fig 5. The method of the Literature Therap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60. 박인파. “그림 5. 문학치료의 방법”.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60.
- [6] Park In-Kwa. “Fig 6. Map of the Literature Therap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61. 박인파. “그림 6. 문학치료의 지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61.
- [7]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Seoul: 2015). 41~42. 박인파. “2) 이름시조 창작해 주기”.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국제문화기술진흥원, 서울: 2015). 41~42.
- [8] Park In-Kwa. “Writing Sijo built in the sense of humor”. 『The Form and Application of Sijo』(Korean Literary World, Seoul: 2013). 154~159. 박인파. “해학 넣어서조 짓기”. 『시조의 형식과活用』(한국문단, 서울: 2013). 154~159.
- [9] Park In-Kwa. 『The Form and Application of Sijo』(Korean Literary World, Seoul: 2013). 49~50. 박인파. 『시조의 형식과活用』(한국문단, 서울: 2013). 49~50.
- [10] Park Chan-Bu. 『EROS AND DEATH』(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ed Culture Center, Seoul: 2013). Preface VI~VIII. 박찬부. 『에로스와의 죽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2013). 머리말 VI~VIII.
- [11] Jeong Un-Chae, Co-author of 36 members. 『Research achievements by the

- field of Literary Therapy Study」(Literature and Therapy, Seoul: 2013). 27~29. 정운채 외 35인. 「문학치료학의 분야별 연구 성과」(문학치료학, 서울: 2013). 27~29.
- [12] Chae Yeon-Suk. 「Healing in Writing」(Kyungpook National Univ. Press, Daegu: 2011). 37. 채연숙. 「글쓰기치료」(경북대학교 출판부, 대구: 2011). 37.
- [13] Baars Bernard j.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Translated Kang Bong-kyun. (Kyobomunko, Paju: 2010). 13~15. Baars Bernard j. Gage Nicole M. 「인지, 뇌, 의식」 1판. 강봉균 번역. (교보문고, 파주: 2010). 13~15.
- [14] Cooper Geoffrey M.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Translation 14 other than jeonjinseok. (Worldscience, Seoul: 2011). 9-12. Cooper Geoffrey M.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전진석 외 14인 공역. (월드사이언스, 서울: 2011). 9-12.